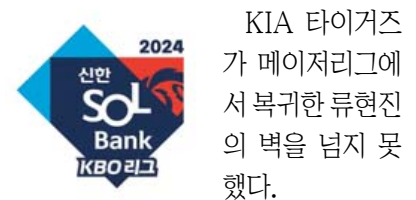


# 무산된 '에이스 매치'... '류현진 벽' 높았다

### KIA, 시범경기 한화전 1대9 패배

#### 양현종 대신 마운드오른 장민기 1회 '와르크' 이형범·이준영·장현식·임기영 불펜진 위안



KIA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류현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탄탄한 불펜 마운드 운영은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KIA는 12일 한화생명아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 리그 시범경기 4차전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1대9, 강우폴드패했다.

KIA는 1회에만 볼넷 5개, 데드볼 2개 등을 내주며 대거 9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KIA는 예정대로라면 '토종 에이스' 양현종이 등판해 '에이스 매치'가 성사될 예정이었지만 양현종이 갑작스런 배탈로 컨디션이 좋지않아 좌완 장민기가 선발로 나섰다.

2021년 KIA에 입단, 2년간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복귀한 장민기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2이닝 동안 9타자를 맞아 삼진 4개를 잡아내는 등 호투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날 마운드에 오른 장민기는 선발 류현진과의 원정경기 맞대결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심한 제구력 난조를 보였다.

장민기는 02이닝 동안 9타자를 맞아 2피안타 5사사구 7실점을 기록, 패전의 멍에를 떠안았다.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성과도 있었다. KIA는 안정된 불펜진의 로테이션으로 두터워진 팀스를 확인했다.

2회부터 김민주, 이형범, 이준영, 장현식, 임기영으로 이어지는 KIA 마운드는 7회까지 단 2안타만을 내주며 한화 타선

을 무력화시키며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전날까지 시범경기 3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터트린 팀 타선은 5안타에 그쳤다.

박찬호와 이우성, 김도영, 서건창, 한준수가 1안타씩 때렸다.

1회초 KIA가 선취점을 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이우성이 2루타로 나간 뒤, 김도영의 적시타가 터지며 1대0으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1회말 백이닝으로 내졌다. 1사 1, 2루 상황에서 4번 노시환에게 스리런을 내줬고, 이어 2루타, 볼넷, 연속 데드볼로 한점을 더 허용했다. 이어진 2사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김민주도 볼넷 2개와 안타 2개로 대거 5점 (자책 2점)을 내줘 1대9로 벌어졌다.

2회부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7회까지 0의 행진이 전개됐다.

추격이 필요한 KIA는 4회 수비실책과 땅볼로 만든 2사 3루에서 김선민의 타구가 류현진의 몸에 맞고 굴절했으나, 1루 송구 아웃되면서 득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6회에도 선두 타자 대타로 나온 서건창이 안타로 출루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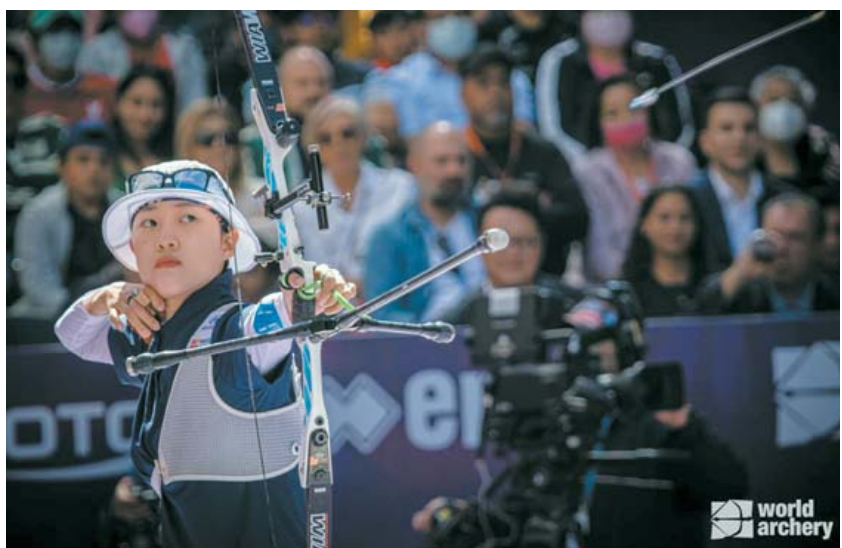
이날 경기는 갑작스런 강우로 8회초 KIA의 공격 상황에서 종료됐다.

국내 복귀 후 첫 실전 등판한 류현진은 4이닝 3피안타 0사사구 3삼진 1실점으로 호투, 승리투수가 됐다.

시범경기 전적 2승2패를 기록한 KIA는 오는 14일 장소를 잡소를 옮겨 두산과 시범경기 5차전을 갖는다.



12일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호투를 선보인 KIA 불펜진. 위로부터 이형범, 이준영, 장현식, 임기영. (KIA 타이거즈 제공)



## '도쿄 양궁 3관왕' 안산 파리올림픽 도전 무산

###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 조기 탈락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의 올림픽 2연패 도전이 무산됐다.

안산은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6위 안에 들지 못해 조기 탈락했다.

2차 선발전 통과한 남녀 20명에 한겨울 아시아게임에 출전했던 남녀 4명을 더해 진행된 3차 선발전은 1-3회전 경기 결과 배점 합계로 상위 16명을 가린 후 역배점을 안고 4-6회전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확정한다.

안산은 1-3회전 배점 합계 14.5점으로 21위에 머물러 4회전에 오르지 못했다.

한겨울아시아게임 3관왕 임시현(한체대)이 배점 합계 55점으로 여자부 1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공사로 오는 오예진(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의 올림픽 2연패 도전이 무산됐다.

안산은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6위 안에 들지 못해 조기 탈락했다.

남자부에서는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김우진(정주시청)과 김제덕(예천군청), 오진혁(현대제철)이 각각 1, 2, 4위로 1-3회전을 통과했다. 3위는 서민기(현대제철)가 차지했다. 광주·전남선수로 유일하게 참가한 이승운(남구청·13.5점)은 22위에 자리하며 고배를 마셨다.

오는 14일 최종 선발된 남녀 8명의 국가대표들은 3-4월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치러 남녀 상위 3명이 파리올림픽 무대에 선다. /박희중기자

## "페널티박스 안 여우"

### 에스턴 빌라전 '1골 2도움' 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1골 2도움을 몰아치며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대승을 이끈 손흥민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하는 '이주의 팀'의 한자리를 꿰찼다.

손흥민은 12일 BBC가 발표한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가스 크룩스 이주의 팀'에서 3-4-3 포메이션의 오른 측면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일 열린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올려 토트넘의 4-0 패승에 공헌했다.

이날 득점을 신고한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150골을 기록,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공격수 클리프 존스와 함께 구단 통산 득점 순위에서 공동 5위를 이뤘다.

축구 전문가 크룩스는 손흥민을 이주의 팀에 선정하며 "한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거나 득점 기회를 직접 창출하기도 하지만 '페널티박스 안의 여우'가 될 수도 있다"며 "주장으로 임명된 후

손흥민이 지난 10일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팀의 세번째 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더욱 '팀 플레이어'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등에서 흔히 쓰이는 '박스 안의 여우'(a fox in the box)라는 축구 용어는 페널티지역에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자주 득점하는 스트라이커를 칭하는 표현이다. /연합뉴스



## "'꿀찌'에게 보내 준 홈팬들의 사랑...다음 시즌 도약으로 보답"



### AI페퍼스, 16일 시즌 마지막 홈경기서 팬 감사 이벤트 'THANK U FANS' 개최



팬 퍼져 축은행 AI페퍼스가 2023-2024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AI페퍼스는 오는 16일 오후 4시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이번 시즌 아깝없는 응원과 성원을 보내준 홈팬들을 위해 팬 감사 이벤트 'THANK U FANS'를 개최한다.

이번 팬 감사 이벤트는 AI페퍼스가 이번 시즌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음에도 변함없는 관심

과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 시즌 더 나은 모습을 약속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해당 홈경기 티켓은 전 관중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AI 페퍼스는 경기 전인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페퍼스타디움 외부 광장에서 익스피리언스존, 뮤직존, 포토존, 이벤트존, 게임존, 푸드존, 스폰서존이 설치되며,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및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선수들이 훈련 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리시브 체험 프로그램 및 스파이크 챌린지가 진행되며, 팬들은 선수들의 훈련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

AI 페퍼스 마스코트 컬러링 이벤트, 광주 로컬밴드 공연, 미니바 이킹 및 레트로 오락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체험이 가능하며, 티켓 지참 시 1인당 최대 1만원 상당의 식음료 쿠폰이 제공돼 준비된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간식 및 식음료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AI 페퍼스의 광주 지역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인 페퍼 패

밀리심 가맹점주들의 플라마켓도 열려 다채로운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선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경기 전, 박은서, 엄어령 등의 선수로 미니 팬사인회가 열리며, 경기 후에는 경기 전 팬들이 남긴 메시지에 대한 선수단의 Q&A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팬들과 선수단과의 단체 사진촬영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사후 이벤트로 선수단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와 선수단이 그려진 V톤 후드티 제공 및 추첨을 통한 경품 혜택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I 페퍼스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중기자

## 글래스노우 vs 다르빗슈

### MLB 서울시리즈 1차전...2차전은 야마모토 對 머스그로브

오는 20-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MLB)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인 서울시리즈 2연전의 선발 투수가 공개됐다.

MLB 사무국은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벌이는 서울시리즈 1차전 선발 투수로 타일러 글래스노우(다저스)와 다르빗슈 유(샌디에이고), 2차전 선발 투수로 조 머스그로브(샌디에이고)와 야마모토 요시노부(다저스)를 각각 예고했다. 20일에는 샌디에이고, 21일에는 다저스의 홈경기로 치러진다. 두 팀 모두 예상했던 1선발 투수를 2차전으로 돌리고, 2선발을 1차전 선발로 기용한 모양새다.

일본 출신 투수 다르빗슈는 2017년(텍사스 레인저스), 2021-2022년(이상 샌디에이고)에 이어 네 번째로 개막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연합뉴스